

대한양계협회 소식

대한양계협회를 종계 심사기관으로 지정

농수산부는 지난 8월 9일자로 공포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중에서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양계협회를 종계심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동시에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 3 및 제26조의 11에 의한 종계심사기준과 종란의 규격을 작성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제26조의 4규정에 의한 종계심사 수수료는 각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농수산부가 승인케 되어 있는 바 중

제심사기관으로서의 안을 농수산부에 제출할 것과 종계심사위원은 가금육종에 권위있는 인사로써 규정하고 위원명단과 심사절차를 작성 제출할 것등을 지시했다. 또한 축산법 시행규칙 부칙 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기존 부화장의 재등록을 6개월이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재등록 시에는 필히 종계심사를 필한 종계장과의 종란공급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 처리할 것등도 아울러 지시했다.

종계확인심의

위원회 구성 예정

농수산부는 지난 8월 9일 축산법시행 규칙중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령중 제26조 3항의 「종계심사기준」 및 제26조 11항의 「종란의 규격」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되어있는데 종계심사기관인 양계협회는 양계업계 중진들을 중심으로 종계확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종계심사기준 및 종란선택기준을 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을 예정이다.

제 6 회 육용계 및

제 8 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 종료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여 오던 제 8 회 산란계능력검정과 제 6 회 육용계능력검정이 지난 8월 14일로 완전히 끝마쳤다. 이에대한 검정성적은 검정위원회의 엄

밀한 검토를 거쳐 9월말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검정성적의 상세한 결과는 본지 11월호에 게재될 것이다.

세계 가금박람회

개최예정

10월 26일과 2일 양이틀간에 걸쳐 스위스에서 세계가금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사진을 대한양

계협회 스위스지부가 한국본회에 제공할 것이라 한다. 현재 대한양계협회 스위스지부장으로서는 윤중덕씨가 맡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이 가금박람회에 본회 임원을 파견할 것인가는 검토중에 있다.

과위원장) 황수원, 권영식, 용호 축산협동조합장 <육계부> : 장남식(월요회 회장), 이종길, 정철문, 최상학.

<부화부> : 우정철, 손중현 <감 사> : 김인규, 김성봉

부화업자 친목회 결성

지난 5월 부화업자 야유회가 있었던 남이섬 유원지에서 발의되었던 “부화인 친목회”는 전 “부화친목회”를 기초로 하여 확대개편된 것으로 신촌부화장 대표 강금노씨를 중심으로 그 첫모임을 끝 갖기로 했다고 한다.

부산지부 창립 1주년 기념총회 개최

지난 8월 30일에는 부산에서 대한양계협회 부산지부 창립 1주년 기념총회가 100여명의 관제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본협회에서는 총정택전무가 참석하여 당면해있는 연료대책, 면세관계, 기타 양계전망 및 사료문제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업무보고와 감사보고후에는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하였다. 새로운 임원단은 아래와 같다.

지부장 : 이병달<유입> (동아대학교 농대축산학과교수)

부지부장 : 박희관<육계부> (김해양계장 대표), 이병우<채란부> (양산천성농장대표), 강명중<부화부> (협동부화장대표)

이사 : <채란부> 김중경(채란본



서울시 양축용 연탄공급 키로

양축가들의 월동에 대한 최대 관심사인 연탄문제가 서울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게됐다. 서울시는 양축가들에게 11월부터 비가정용 판매기록장에 의거 공급케 하였으며 관한 양축가들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 공급받으면 될 것이다. 서울

시 이외의 각시도에서는 금년도시도별 공급계획량 범위내에서 지방장관 책임하에 수급조절 대책을강구 시행토록 조치되었으므로 지방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 住宅街에 가축사육 禁止

서울시내 주택가에 닭 돼지등 가축을 사육하는 일이 많아 주변 환경이 불결해져 전염병을 옮기는 온상이 되고 있어 서울시는 주택가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條例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새 조례에서 우선 서울일원의 가축사

육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정부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시험연구등 공공용 목적의 사육장을 제외하고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반경 10km지역(서울시청을 중심으로)에서는 일체 가축사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반경 10km이외의 지역이라도 개발제한지역(그린벨

트지역)과 농업지역 그리고 서대문구 난지도 외의 주택가에서는 일체 가축사육을 금지키로 할 방침이다. 이 조례에서는 또한 벌칙을강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되는 경우 오물 청소비용 등 관계 법을 적용,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사료협회 유운수회장 외 2명 사료자원 조사차 동남아 순방

한국사료협회 회장 유운수씨와 농협중앙회 특수조합부 한기환차장, 사료협회 김달용차장 이상 3명은 지난 9월 14일 사료자원조사

와 사료원료구매관계협의차 동남아로 출발했다. 이들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등을 순방하고 9월 25일 귀국했다.

김권철씨 渡瀟

9월 15일 농수산부 사료과의 김권철씨는 낙농관계 트레이닝차 2개월예정으로 호주에 건너갔다. 약 1개월간 체류예정이라 한다.

박대진씨, 서기상씨 김화산씨 증돈구입차 방미

국립종축장 사천지장장 박대진씨와 농수산부 축산과 서기상씨 성환국립종축장장 김화산씨 등 3명은 9월 18일 증돈구입차 미국으로 떠났다.

감별사 친목 야유회

지난 8월 26일 한미병아리감별학원이 주축이 되어 감별사들의 친목을 위한 야유회를 남이섬에서 가졌다. 약 50여명이 가족동반으로 참석을 하여 마지막 더위를 시원하게 보냈는데 이날 모인 감별사들은 앞으로 상호간의 연락을 긴밀히해서 감별업체 발전을 위해 서로 힘쓰자고 약속하는 한편 인간적으로도 가족상호간에 유대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성감별사들이 외국에 빠져 나가므로해서 감별사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나

한협협력회

창립 1주년 총회

한협협력회는 지난 9월 17일 창립제 1주년 총회를 개최했는데 유일농원 대표 이규상씨와 명지부회장 대표 정석택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임원개원이 있었는데 회장에는 윤경중씨가 취임되었다. 한편 협력회원들이 모인 장소에서 초빙된 오봉국교수의 제15차 세계가금학대회 및 박람회 참석했던 귀국 강연회가 있었다.



蓮庵畜産高等技術學校 캐나다 앨버타

(ALBERTA) 주와 자매결연[협약중]

캐나다 앨버타주 부수상점 농림 장관인 C.J. Mc Andrews씨를 비롯하여 앨버타주 수출기구 국제무역담당 Alf. A. Presber씨 농산물 시장국장 Harry J. Hargrave, N.S. Thomson씨등이 지난 8월 31일 내한하여 9월일에는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고 (種牛기증), 9월 6일 렉키구름 회장 및 연암축산교장 전동용씨등과 만나

연암축산고등기술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자매결연체결에 따라 현재 협의 진행중인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졸업하는 연암축산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을 1년간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가 지정하는 농장에 6명씩 보내어 기술교류를 하기로 하고 앨버타주에서는 교사 1명을 매년 보내어 학생들의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실시할 종목은 양계, 양돈, 대가축, 사료의 4개분야가 될 것이다.

東邦油糧, 대두박

원활공급을 위한 대책 활발

국내 유수의 대두박 공급 메이커인 동방유량은 대두박 수요의 성수기를 맞아 화차발주량이 폭주하고 있으나 철도청의 화차배정이 여의치 않아 각 사료공장의

대두박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여 앞으로의 공급에 단전을 기하기 위한 원만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데 곧 사료공장이나 양축가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다.

天一穀産 제 3 공장 (유지공장) 준공

천일곡산사료(주)는 10월 1일 경기도 김포군 오정면 삼정리 제 3 공장(유지공장)을 준공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옥수수 기름 한 가지만 생산하고 앞으로 아미인유, 채종유, 야자유등의 기름도 생산할 예정이라 한다.

동순·구리부화장 합동양계강습회

지난 9월 9일 수원에서 동순부화장과 구리부화장이 합동양계강습회를 가졌는데 건국대 오세정교수와 민덕기씨가 연사로 참석했다. 본 강습회에서는 양계협회 수원지회결성의 움직임이 있었다

자돈설사 특효약 메카독스를 생산하여 양축가의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화이자 주식회사는 제품 메카독스-10과 오레안도 마이신에 대한 사양시험을 서울 농대교수 한인규 박사에게 의뢰했다. 메카독스-10은 10~40kg까지의 자돈에, 오레안도 마이신은 40~80kg의 돼지에 사양시험을 할 예정인데 시험두수는 모두 72두라고 한다. 이 시험은 9월 25일부터 실시 현재 시험중에 있다.

삼우화학 아론산

<신발매>

삼우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는 신제품으로 아론산이라는 중·대동물용 정장지사제를 발매중인데 이제품은 살균적인 정장지사제이며 수렴작용이 강하고 흡착력이 강하며 위장관의 경련완화효과가 우수하다고 한다.

시범농장 견학단 모집

현대 양계사는 양축가들로 하여금 시범농장 및 관계업체를 견학하여 축산업의 향상된 기술과 발전상을 보고 들음으로써 각각의 사양및 경영관리에 도움이 되

게하고자 견학단을 모집하고 있다. 견학기간은 10월 11일, 12일 (1박 2일)이며 회비는 1인당 4,000원이라 한다. 예약접수는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오국봉박사 귀국

제15차 세계가금학대회 및 가금박람회에 참석차 지난 8월 14일 도미했던 오봉국교수는 회의종료 후 미국 가금산업관계연구소와 관계장등을 방문하고 8월 31일 귀국했다.

한국화이자(한인규박사에) 사양시험의뢰

사조회 낙시대회 개최

— 오산 산책 저수지에서 —



지난 9월 17일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사료 관계 관련업체인 사료협회 회원, 임직원 옥수수 가공협회, 제분협회, 회원공장직원등이 모여 사조회라는 모임을 갖고 사조회원들의 우의를 도모하기 위한 낙시대회를 갖기로 협의, 대회협찬은 전대회의 우승팀이 하기로 결정, 금년봄 우승팀인 제일사료와 준우승팀이었던 천일곡산의 협찬으로 지난 9월 22일(일) 오산 산책저수지에서 낙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팀은 천일곡산, 신촌사료, 대한사료, 부곡사료, 한국축산, 서울사료

소신중계원, 한국카아길, 제일사료, 삼화양유, 영남제분, 제일제당, 풍진화학, 금성산업, 농수산부, 사료협회 제분협회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이 대회의 단체상 우승에는 대한사료, 2등에 한국축산이 찾아하고, 개인상 우승에 대한사료 김정웅 과장(32cm 붓어), 2등에 대한 사료이희동(25.2cm 붓어) 씨, 3등에 제일사료 조병국 차장이 찾아왔다.

축산인 테니스 동우회 발기

지난 9월 17일(화)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테니스 애호가들인 KIST 김춘수실장, 사료협회 강관용 전무, 흥성사료 오재정현무, 최천수 과장, 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 과장, 대한사료 이재문 차장등이 모여 축산인테니스 클럽의 정관을 초안하고 테니스

모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1년에 4회정도로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8월 11일 흥성사료 후원으로 제 1차로 개최되었던 그 다음으로 제 2회 대회는 금년 10월말경에 개최할 예정인데 후원업체는 대한사료가 되리라 한다.

육 충실하게 되어 금후는 데칼브와—렌, 그리고 김바—등 세계에 이름난 닭을 보다 충실히 개량 발전시켜 수요가들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국 축산학회 개최예정

오는 10월 12일에 한국축산학회(회장 오봉국박사)는 서울농대에서 정기총회와 아울러 추계 논문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대규모 사료공장 인천에 설립

농협중앙회는 인천시 중구 향동에 배합사료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9월 24일 기공식을 가진 동배합사료공장은 농협 자체자금 5억 3천 7백만원과 서독재건은행 차관자료 1억 7천 84만원등 모두 7억 9백 94만원을 들여 1일 생산량 3백톤, 연간생산 9만톤 규모

의 공장을 세우게 됐다. 내부시설을 모두 자동 현대식으로 갖춘 동공장은 대지 4천 7백평 위에 공장 1동과 4백톤용 저장할수 있는 사이로 창고, 위생시설을 구비하게 되는데 완공은 75년 7월 말 예정이다.

신제품 안내 〈대한신약〉

대한신약에서는 신제품으로 자궁수축용 옥시토신제인 인터토신—에스(Intertocine—S) 〈Inter-vet社 製品〉과 돼지의 전염성 위장염 예방백신〈일본 화학현정 연구소제품〉인 T.G.E백신을 9월 16일 부터 판매하고 있다.

데칼브·김바를 흡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데칼브社는 최근 미국 육종 전문회 사로써 유명한 김바—社의 주(株)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재 교섭중

인데 김바—社는 이러한 데칼브 측의 요청을 이미 수락하고 내부 조정을 하고 있어. 이 일련의 절차는 늦어도 9월말 까지는 매듭이 지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 리하여 데칼브의 육종 소재는 더

퓨리나 인사이동

이현봉씨 기술부장에서 품질관리부장으로 하낙순씨 부산지구부장에서 기술부장으로 각각 직책을 옮겼다.

業
界
情
報

미국, 곡물 수출 규제에 신중

곡물수급은 불안정 ?

미국에서는 옥수수, 콩 등 곡물의 대폭 감수 전망이 밝혀짐에 따라 곡물의 수출을 규제하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현재 상태로써는 괜찮다는 반대 내지는 신중론이 있어 미국 상원에서는 최근 긴급 청문회를 열었는데 현

재로서는 반대와 신중론이 규제과를 약간 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민주당의 험프리 의원 같은 분은 수출금지 조치에는 반대이나 수출허가제의 도입에는 찬성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농무성은 현재로서는 곡물수출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어떠한 형태이든 모종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짙다고 한다.

미국농무성이 8월 1일 현재의 주요곡물의 수확예상을 발표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곡 물	예상 수확고 (단위 : 1,000북셀)	
	8월 1일 현재의 예상	작 년 최종추계
옥 수 수	4,965,950	5,643,256
수 수	618,953	936,587
콩	1,314,232	1,566,518
소 맥	1,839,876	1,711,400

옥수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2%의 감수이며 수수, 콩 모두 감수의 폭이 크다. 이 중 유독 소맥만이 전년도 실적 17억 1,140만 북셀을 상회하는 18억 3,987만 북셀의 사상 최고의 증산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렇게 주요곡물의 작황이 나빠진 주요 원인은 작부시의 호우와 그후의 한발로 인한 것인데 8월 들어서 비가 알맞게 내려서 약간은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

中共 74년도 곡물수입 1,000만톤 線일 듯

중공은 지금까지 체결된 곡물 수입 계약이 모두 이행될 경우 금년중 약 1,0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읊서버들은 관측하고 있다. 중공의 74년도 곡물수입 예상량은 73년도 수입량보다 250만톤이 많고 60년대의 평균 수입량보다는 2배나 많은 양이다. 중공은 최근 캐나다와 300만톤의 곡물수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공·캐나다 양국은 작년 체결된 장기곡물 수출입 계약에서 74년 중에는 200만톤의

곡물만을 거래토록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미 수확이 시작된 금년도 곡물생산량이 작년 수준을 겨우 상회하는 정도로서 72년과 73년의 대홍작에 따른 재고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곡물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한편 중공은 금년초 미국산 수입소맥의 품질문제를 이유로 對美 소맥수입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발표해 정확한 수입량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는 29% 늘었으며 西獨은 전반적으로는 72년에 비하여 줄었으나 11월만은 11%늘었다.

이태리의 양제시대 에서는 두드러지게 증가 되었는데 9월은 5%, 10월은 60%나 늘었다.

캐나다, 큐바와 영국에 계란옥수수

캐나다 퀘벡州 당국은 큐바에 8,000톤의 퀘벡州산 부로일러를 수출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그리고 동국의 계란이 英國시장에 수출될 가능성도 짙어지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에그 마케터들의 하하면 "최근 70케스의 A급 대형란이 온타리오로부터 런던으로 수출 되었는데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수출될 것이 기대 된다"고 하였다.

EC각국 산란계 육추증가

1973년의 마지막 3개월간의 EC 각국의 산란계 입추 수수의 통계를 보면 모두 입추수수가 늘어

고 있다. 벨준은 11월의 입추가 72년도 동기보다 19% 늘었고 불란



스웨덴 부로일러 자리깃 規制

스웨덴의 부로일러 생산자는 부로일러 육성에 쓰이는 자리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까지 톱밥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톱밥을 자리깃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목재를 제제할 때 품질보장을 위하여 PCB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실험에 의하면 병아리가 자리깃을 발로 헤쳐 이것이 음수에 들어가게 되며 이에따라 병아리가 오염된 물을 먹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나왔

는데 이러한 물을 마신 닭의 고기에 잔유물이 있으며 인체에 이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톱밥 사용규제를 받게 되어 부로일러 생산자가 자리깃으로 짧게 짜른 깔짚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깔짚은 톱밥과 마찬가지로 흡수성이 있어 자리깃으로는 좋으나 값이 톱밥보다 엄청나게 비싸져서 골머리라고 한다.

세계 여러나라 부로일러색소 취향각양각색

제15차 세계가금회의에 J.C. Bauernfeind씨와 Hoffmann-La Roche씨등이 발표한 것을 보면 부로일러색소에 대한 개발이 되고 있는 안되던간에 그것은 각나라에 따라 크게 그 취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태리사람들은 아주 짙은 색깔을 좋아하고 스웨덴 사람들은 밝은 색깔을 원하는 등 여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짙은 색깔에서부터 밝은 색깔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미국가정 주부들은 부로일러색깔이 허영계 보이면 된가 잘못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료에 들어가는 색소의 양과 탐색깔을 어느 나라에 수출될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다음 닭과 칠면조의 알을 장기간저장하고도 부화능력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Frank L. Charms씨와 James J. McIlraith씨가 발표한 것을 보면 그들은 계란을 표준상태보다 좀더 짙게한 상태에서 계란을 밀봉하였고 프라스틱가방이 사용됐다. 칠면조는 프라스틱가방에 저장했을 때가 더 부화가 잘됐다.

탄산개스로 저장했을때는 계란이나 칠면조 알에 다같이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실험에서 계란저장시 질소공기에 저장한 것이 보통 공기에 저장한 것에 비했을때 부화능력이 어떤 개선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보고 했다.

농가수익 전망이 밝기 때문인데 여기에 인플레이까지 겹쳐 부동산투자가 성행하고 있는바 주로 토지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Newsletter 20호에서—

세계가금학협회 회장인 A. William Jasper 박사 피선

지난 8월 12일 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제15차 세계가금학대회에서 새로운 회장으로 스페인의 Jose Castello박사 후임으로 신임회장에 미국의 A. William Jasper박사를 선출했다. 이것은 회의 주최국에서 차기회장을 뽑게되는 것이다. 다음회의는 78년 8월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다.

이석규씨

삼일농장으로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졸업한 이석규씨가 삼일농장에서 근무하게 됐다. 씨는 농업기술자협회에 근무하다가 일본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

미국농가 평균부동산 5,000만원

미국의 농가 평균부동산 가격은 작년과 금년에 계속 상승세를 보여 현재 약 5,000만원(12만 5,000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고 농무성의 한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의 농가 부동산은 현재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 75년 3월까지의 약 15%정도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74회계연도에는 25%나 상승한바 있다. 농가 부동산이 이처럼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73년의 농산물 가격상승과 앞으로의